

글 김규나

임유이그림

성장소설 최초의 당신

《224》 무엇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가

하운이 울었다. 가면 뒤에 숨긴 것은 거짓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고통을 감추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삶의 가치, 그 삶을 꾸밈없이 지켜 내려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웃음을 감추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눈물을 감추고 웃음을 보이는 건 신조차 기뻐할 삶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에게조차 고통을 감추며 지켜 내야 할 무엇이 내 삶에 남아 있는 것일까.

나는 에바의 글귀를 쓸쓸하게 쳐다보았다. 에바는 주결의 죽음을 하운에게 연락했다. 트러스트 미를 통해서 주결을 그의 자식들 곁으로 떠나보냈다.

장례식에 에바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

사내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호기롭게 뛰쳐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왔고 나는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죽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쓸쓸한 일입니다.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걸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한참을 걷다 보니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잇는 다리 위에서 있었습니다.

폭이 넓고 수심이 얇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젓빛의 물결, 젓빛의 몸부림.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연어였습니다. 얇은 모래톱에 올라서서 날개를 터는 오리들도 연어를 지켜보았습니다.

물살을 역류하며 자갈에 몸을 부딪친 연어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거슬러 오른다고 말할 수 없었지요. 연



치자꽃은 연유를 떠올리게 하는 고운 흰색으로 피어난다. 치자꽃은 홑꽃인데 비해 변종인 꽃치자는 백장미를 닮은 겹꽃이다.



윤상구 사진작가

조선 문인 강희안 ‘가장 귀한 꽃’ 예찬

꽃으로 쓰는 역사

㉞ 향기 좋은 치자

‘치자’라는 이름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치자나무 치(柘)는 치자 열매 모양이 숲잔을 뜻하는 치(處) 자와 비슷해 그 글자 옆에 나무 목(木) 자를 붙인 글자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입이 없음’ ‘말이 없음’이라는 뜻을 담은 쿠치나시(口無)라고도 불리는데 입을 오므린 듯한 열매 모양에서 이름이라 한다. 함부로 훈수 두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 바둑판의 네 발을 치자 열매 모양으로 각지게 조각했다는 설도 있다.

치자꽃은 연유를 떠올리게 하는 고운 흰색으로 피어난다. 그런데 치자 열매에서는 황금빛에 가까운 노란색 색소를 추출할 수 있다.

빛깔도 곱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착색력도 강해서 치자 물은 예로부터 식용 색소로 많이 활용되었다.

치자 물은 단무지는 물론 떡이나 전튀 감음료, 카레 등에 사용되어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고 약 캡슐이나 알약에 색을 넣는 데도 쓰인다. 또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섬유 염색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향수 품명 ‘가드니아’는 치자나무 속명 또는 치자는 한방 약재로 쓰인다. 명든 곳에 치자 물로 갠 밀가루를 붙이는 민간요법이 널리 전해져 왔다. 치자꽃은 맑고 진

한 향기로도 유명하다. 치자나무는 실제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데 향수 품명인 ‘가드니아’는 치자나무의 속명이다. 영국 식물학자 존 엘리스가 친구 알렉산더 가든의 이름을 따서 치자나무 이름을 지은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꽃치자’는 변종인데 치자꽃은 홑꽃인데 비해 꽃치자는 백장미를 닮은 겹꽃이다.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꽃치자는 숨이 막힐 정도의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조선 전기의 문인 강희안은 자신의 원에서 ‘양화소록(養花小錄)’에 “치자는 꽃 가운데 가장 귀한 꽃이며 네 가지 이점이 있다. 꽃 색깔이 희고 기름진 것이 첫째이고 꽃향기가 맑고 풍부한 것이 둘째다. 겨울에도 잎이 변하지 않는 것이 셋째이고 열매로 황색 물을 들이는 것이 넷째다”고 예찬했다.

‘양화소록서 치자를 예찬한 강희안’ 강희안은 그림을 잘 그렸지만 그 사실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들들에게 “글씨나 그림은 천한 기술이니 후세에 전하면 도리어 이름만 욕될 뿐이다”고 경계까지 했다.

그 덕분이었는지 이 사건으로 수많은 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강희안은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후 호조참의·황해도 관찰사 등 고위 관직을 지냈으나 그는 임신양명에 큰 뜻을 두지 않은 듯하다.

강희안은 글 읽고 꽃 키우는 일을 더 좋아하여 근무하는 시간이나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때를 제외하면 꽃 키우는 데 전념했다고 한다.

강희안은 그림 그리기를 아예 멀리한

예로부터 열매는 색소로 사용 명든 곳 통증 없애는 데도 효능 변종 꽃치자 숨 막힐 듯한 향기

것은 아니다. 그는 적으나마 명작 몇 점을 남겼고 경치보다 인물 비중을 더 크게 그린 그의 그림 양식은 당시 조선 화단에 유행이 되기도 했다.

또 “그림은 내게 있어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도구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다.

강희안은 학자로서도 많은 일을 했다.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 주석 붙이는 작업을 했고 ‘동국정운’ 편찬에도 참여했다.

단종 때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강희안은 성삼문·박팽년 등과 가까이 지냈으며 그들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당시 주모자들을 국문할 때 세조가 강희안의 연루 여부를 묻자 성삼문은 “선왕의 명신들을 다 죽여도 강희안만은 남겨두고 쓰시오. 진실로 어진 사람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덕분이었는지 이 사건으로 수많은 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강희안은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후 호조참의·황해도 관찰사 등 고위 관직을 지냈으나 그는 임신양명에 큰 뜻을 두지 않은 듯하다.

강희안은 글 읽고 꽃 키우는 일을 더 좋아하여 근무하는 시간이나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때를 제외하면 꽃 키우는 데 전념했다고 한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원에서 ‘양화소록’ 강희안은 “근래 여러 꽃 키우는 법을 배워서, 땅과 화분에 각기 심어 좋은 곳 따랐네”라는 자신의 시처럼 실제로도 열심히 꽃을 돌보면서 꽃 키우는 방법을 터득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원에서라 할 수 있는 ‘양화소록’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이 책에는 강희안이 화분에 심어 키운 꽃나무 열여덟 종에 대한 글이 담겨 있다. 그는 스꽃나무 재배 요령 △개화를 앞당기는 법 △꽃이 싫어하는 것 △종자나 뿌리를 보관하는 법 등 경험으로 알게 된 꽃나무의 고유한 성질을 이 책에 실었다. 뿐만 아니라 스꽃에서 추구해야 할 점 △꽃을 기르는 뜻 등 감성적인 면도 다뤘다. 강희안은 ‘양화소록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 포기 풀이나 한 그루의 나무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것들이 지닌 이치를 생각하여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앎을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고 그 마음을 꿰뚫어 통하지 않음이 없게 되면 나의 마음이 자연히 만물에 머물지 않고 만물의 밖에 뛰어넘어 있을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얽음이 있으리오.”

이렇게 식물과 깊이 교감하고 오감으로 꽃을 즐기는 강희안에게 꽃 모양이 예쁘고 향이 강하며 쓸모까지 많은 치자는 황금처럼 귀한 식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가장 귀한 꽃’으로 강희안에게 사랑받은 치자꽃도 그 사랑에 걸맞은 다양한 즐거움과 유익함을 강희안에게 돌려 주었음에 분명하다. 누군가에게 귀여운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던가.

황인희작가



신 해월영에 혼자 남아 주결을 추모했고 그들의 인생과 사랑이 담긴 글을 마무리했다. 에바는 하운에게 유언 같은 노트를 건네고는 독일로 돌아갔다. 한 사람의 사랑이, 인생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에바가 쓴 마지막 글을 읽어 내려갔다.

- 무엇이 나를 살아 있게 했을까요. 약효가 사라진 열두 시간 뒤에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나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지만 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는 것일까.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월영을 도망치듯 나와 버스를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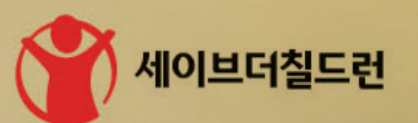
어는 제자리에서 거친 물살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한복판을 따라 흐르는 얇은 하천은 낡은 버스가 토해 낸 검은 매연에 휩싸인 소도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가까운 곳에 산란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수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쪽에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머에는 더 넓은 바다가 이어지고 있을 터였습니다.

연어도 어쩌면 의심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는, 그곳에 다다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 백일잔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의 백일이예요.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념할지 의논하고 있어요.

나를 낳느라 고생을 많이 한 엄마와 매일 밤잠 설치며 재워주는 아빠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기특한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나의 백일,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좋은 날, 행복을 더하는 기부 좋아서하는기념일



‘좋아서하는기념일’은 백일, 첫돌, 결혼, 일상 속 다짐 등 다양한 기념일을 기부로 기억하는 후원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후원 감사증서와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좋아서하는기념일 을 검색해보세요!

참여문의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like

